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
배 포 일	2020. 5. 22. / (총 4매)	담당부서	운영지원과
과 장	이 재 란	전 화	044-202-2100
담 당 자	김 현		044-202-2110

보건복지부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방문 (5.21)

- 감사와 격려 전하며 협력 당부 -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지난 5월 21일(목) 오후 3시부터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*(이하 종지협)에서 종교계를 대표하여 코로나19를 대응 중인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.

*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 대표 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하여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,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, 유교 손진우 성균관장, 천도교 송범두 교령 등이 동행

- 이번 방문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수고가 많았던 보건복지부 직원 및 지원 인력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)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(중앙방역대책본부장)이 참석했다.

- 종지협 대표의장 원행스님(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)은 “박능후 장관님 이하 모든 직원들,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많은 의료진들에게 종교계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.”라고 전했다.

-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“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은 물론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다.”라고 밝혔다.
- 또한 “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온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, 앞으로도 그간처럼 종교계의 성숙한 의식과 협조를 통해 생활 속 거리 두기와 방역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”라고 전했다.
-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“사스, 메르스 등 많은 감염병을 겪어왔지만 코로나19는 굉장히 다른 감염병으로 큰 도전이고 위기이다. 하지만 이 위기를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다.”라고 전했다.
- 아울러 “종교 지도자들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방역 당국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.”라고 밝혔다.

< 붙임 > (사)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현황

붙임

[사]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현황

☐ 연 혁

- (1997.03.18.) 7대 종단(불교, 개신교, 천주교, 원불교, 유교, 천도교, 민족종교) 지도자들이 종교계 화합 및 연합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「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」 발족
- (1997.10.20.) 사단법인 「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」 설립 허가(문화부)

☐ 단체 성격

- 7대 종단 대표로 구성된 사단법인
- 종교간 화합과 유대 증진, 민족사회에 올바른 가치관 제시 및 실천

☐ 임원 현황

- 이사장(공동대표의장, 1명) : 원행(불교,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)
- 이 사(공동대표)
 - 김희중(천주교,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 위원장, 광주대교구장)
 - 오도철(원불교, 교정원장), - 송범두(천도교, 교령),
 - 손진우(유교, 성균관장)

☐ 주요 사업

1. 종교 간의 화합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
2. 윤리·도덕성회복 등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사업
3. 건전사회봉사활동의 확산 및 연대활동을 강화시키는 사업
4. 청소년 계도와 육성을 위한 사업
5. 통일대비 민족동질성과 상호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업
6.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
7. 종교 문화발전을 위한 연구와 연대사업

☐ 소재지

(03130)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-7 인의빌딩 602호 / ☎ 02-720-8776

< 행사 사진 >



위 사진 왼쪽부터 ▲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, ▲천주교 김희중 대주교, ▲천도교 송범두 교령, ▲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, ▲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, ▲유교 손진우 성균관장, ▲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

